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권진자> ● 본필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양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법공양 페이지

## 내 한마음의 스위치를 올려야

악과 인연을 맺는 것  
선업을 짓는 모든 것  
오로지 마음에 달려 있어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앓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외국에 열 군데나 지원이 생긴 것도 여러분처럼 그 지역 사람들이 자진해서 만든 것입니다. 나는 이날까지 돈을 가져가서 외국 지원을 만들지 않았습니니다. 여기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려 또는 설법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설법이라는 건, 이론이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고 가지 않으면서 오고 갈 수 있는 이심전심이라는 것이 있으며, 오고 가지 않으면서도 공력이나 전력·자력·통신력이 충만하고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내가 지금 오신통이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는데

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넓게, 마음은 채가 없어서 지구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으며 여기 앉아서 여러분 집도 갔다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광대무변하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중요하고 보배롭습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하는 거 아리송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석사,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분들도 더불어 캠퍼스에 모여서 많은 토론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죠. 이 불교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우리가 서로 말하고 공용하고 부드럽게 공생하고 공식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그 자체가 교(敎)라고요. 우리가 말만해서 교가 아니라 저런 꽃잎도 다 이심전심으로 말없이 말

그렇게 해서 물리가 터지도록 하고 그러라, 이 세상에서 너를 누가 도와줄 것인가? 네 주인공만이 너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때에 자녀들의 뿌리는 척지 않고 상상하게 됨으로써 바로 나무와 가장구와 이과리가 성성하게 푸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서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부부지간이

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 한마음의 스위치를 올리면은 식구가 다 밝게 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진실하게 믿으면서 내 자신의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한마음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물리를 터줄 수가 있고, 좋은 데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또 오래 살게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재인이 있을 때도 거기 해결을 하고 해결이 되면은 감사하게 거기 맡겨놓을 수 있다면 정말이지 여러분은, 누가 행복을 갖다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고도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적기도 하고 크기도 합니다. 요즈음 가만히 볼 때 인구는 늘어가도 땅이 많아지는 이유도, 참 여러분을 보면 어떤 땀 땀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 봐도 그렇고 TV를 보다 봐도 그렇고 쓰레기를 그냥 아무 데나 버려서 썩으니 거기서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바로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인과가 됩니까? 인연이 됩니까? 여러분이 버린 거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서 도청기가 거기에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물라도 여러분의 양심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요, 업보가 되는 것이요, 그것을 먼저 못하니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척이면은 나무뿌리가 썩고 우리가 썩은 물을 먹고 또 그 세균은 버린 사람의 인연 따라서 쫓아 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버려서 썩어서 벌레가 낳다면 바로 입력이 되고 도청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벗어날 수 없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니 그게 와서 내 빈집이 중심을 두지 않고, 껍데기의 빈집이 들어가지 않니까, 나가니 않니까? 털구멍을 통해서 그 세균성은 그냥 나한테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병이 들고 괴로움을 같이 가지고 고통을 받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 부처님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 생활에 대해서 저러나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한생각이라도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안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아파

력이 충만히 여러분 속에 있으니 만큼 여기저기 가서 빌지 말고 내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 아프면 거기다가 맡겨놓고 산다면 그대로 자기내면이 의사일 거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관세음보살이 잘나에 왔다가 또는 칠성이 왔다가, 지장이 왔다가 자신이 왔다가, 용신이 왔다가 이렇게 한생각에 마음이 찰나찰나 화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내 한생각에 물리가 터지고, 모든 것을 행복을 받고, 모두 내취도 즐기고 들어와도 두드러지지 않는 세계를 파악한다면 삼천대천세계가 한 주먹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서 내 몸과 가정, 사회생활하면서, 천백억화신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조건을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는 문제, 우주와도 직결이 되고 세상과도 가설이 되어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즉시 무에서 유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99%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요, 돈이 들으니 마음을 그렇게 못습니까?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참선이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바로 자기 자리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바로 좌선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이요, 마음이 복잡하면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

없이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벗어나서 부처님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이 있고 부처님의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 몸이 내 몸이니들이 아닌 까닭에 항상 아무렇게나 아무 데나 놓고 절하지 말고, 절을 할 때도 마음을 흔들려서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고, 세상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일정례를 올리더라도 마음을 흔들려서 정성스럽게 할 수 있다면, 바로 자기 주인공에 자기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고기 덩어리에도가 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서 내 가정과 사회 국가와 세계를 잘되게 하려면 우주를 알아야 되고, 우주를 알면 세계를 조절할 수가 있고, 또는 우리나라를 조절하려면 세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라 이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아라 해서 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가는 것이 바로 자유인인 것입니다. 누구의 칭찬을 받으려 하거나, 칭찬을 받으려고 보시를 하거나 이런 것은 보시가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바로 상인이 물건 파는 그런 마음, 물건 팔아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니, 그래서 무주상 보시를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어떤 것인가? 지금 물질적으로 과학도 만능으로 갖지만 우리 정신계와 물질계의 교차로에 바로 서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신계를 무시한다면 아마도 살기가 급급해지리라 믿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를 보십시오. 또는 우리는 화산을 재료로 삼고 과학자들도 연구재료로 삼고 거기에서 많은 이득이 있었듯이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해서 활력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오고감이 없는 오신통 자체가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 보는 천안통, 가고 올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백시마리 바로 신족통, 전체의 소리를 듣는 것이 '무전통신기' 자 바로 천이통, 속명통이라는 자체가 과거를 전부 아는 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거,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를 속명통이라고 할 때 그것은 컴퓨터와 같은 거죠. 거기에 입력이 돼서 자꾸자꾸 현실에 나오는 것을 운명 파악이라고 여러분은 이름을 붙여놓고 상상 없는 감옥에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는 마음으로서, 그것이 바로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릴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보배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만이 지금 시체로 말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봐도 도가 아니니라,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도 도가 아니니라, 또 과거를 잘 안다고 해도 도가 아니니라, 남의 속을 뻔히 잘 안다고 해서 도가 아니니라, 가고 올이 없이 대천세계를 다 가고 온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그 오신통에서 벗어나서 오신통의 그 굴레 바퀴를 굴러야 만이, 법바퀴를 굴러야 만이 바로 누진 즉 레이더망,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통신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소임을 맡아 가지고 레이더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두뇌도 안으로도 통신, 바깥으로도 통신, 그리고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도 바로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만이 아니라 두뇌만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문제들도 그렇다 합니다. 그렇다 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섭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면에서 찾았다고 애를 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것을, 모든 것이 물리가 터진다면 아마 망원경으로 탐험을 못하는 것을 여러분의 천안으로서, 바로 이 마음의 눈으로서 세계를 다 볼 수 있으며, 세상을 다 볼 수 있으며, 조절할 수 있으며 들을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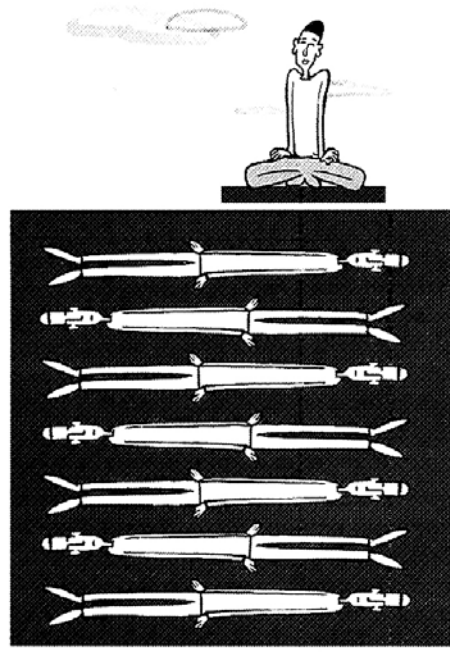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그러나 물질적인 컴퓨터나 탐지나 망원경, 통신기, 핵시밀리를 가지고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치 정신계의, 미래의 모든 점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 굴리면서 사는 이 도리를 알아야 부처님의 공수를 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도 공수를 알지 못하나마 이 시대를 넓게 생각해서 한번 내다보신다면 내 마음의 세계가 오고 가는 자리가 없으면서도 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넓고 둥글고, 길고 짧은 것도 없으면서도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 기반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복으로만 믿어서 물질 노예가 되느냐 또는 내면세계의 노예가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서산대사가 양쪽에 발을 두고 내가 나가겠느냐 들어가겠느냐 하고 사명대사한테 물었듯이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풍을 누고 싶을 때, 내가 풍을 누워야 올은가, 안 누워야 올은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누십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은 여여하게 놓고 가지면서도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불교는 생활불교이자 과학입니다. 미래도 여기 있고 과거도 여기 있고 현재도 여기 있고, 현재마저도 공해서 우리는 잘 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한 것도 벌써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과 아집과 욕심을 떠나지 못해서 전생에서부터 짙어지고 나온 고 덩어리를 놓지 못하면서, 앞으로 사대는 흩어져서 무너지지만 그 고의 배낭은 다시 짊어지고 또 갔다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갖은 고통을 다 받으면서 괴롭게 살고 계시는 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적으나 크나 고통은 다 마찬가지로 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살면서 인과로서 악업 선업을 지은 고 덩어리를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된 속명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나오는 것이 입력이 되었든, 자꾸만 거기 모여있는 의식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기에 다시 맡겨놓는다면 바로 현실에 입력을 되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서에 입력된 것은 다 무너져서 없어지고 현실에 입력하는 것만이 되돌아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에서 유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속의 해아릴 수 없는 그 의식들이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만 좋고 나쁘고,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 지를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만이 나쁘고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생각 하는 데로 몸 속의 그 의식들은 다 따라옵니다. 강도질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강도질을 하게끔 충동을 쳐서 강도질을 하게 만들고, 선의 길을 두고 또는 좋은 일을 한다 하면은 해아릴 수 없는 의식들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악과 선은 판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악의 인연을 맺는 것도 그 자리, 선의 인연을 맺는 것도 그 자리, 마음자

를 하는 것이 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는 풀 한 포기 하나, 꽃 한 송이 하나, 어느 것 하나 불교 아닌 게 없으니 기독교다 가톨릭교다 티베트불교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건 어느 한 귀퉁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죠. 케네디 대통령 묘지에 가보니까 불이 훨훨 타오르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상징을 했는가? 몸은 비록 없어졌어도 그 영원한 근본만이 살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불교가 밥이나 놓고 떡이나 놓고 비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들한테도 "애들이, 밥을 먹는 데도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이 세상의 일체 선지식들의 마음이 다 한마음이란다. 그러니까 한마음에 감사하면서 먹어라. 그래야 엄마, 아빠한테도 고마운 줄 알지 않겠느냐." 하고 감사하게 먹으라고 할 때에 그것이 가르침이죠. 내가 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세상이 벌어지고, 상대가 생긴 거니까 물리가 안 터지더라도, 공부 안 되더라도 거기다가 감사하게 말하고

나 형제지간이나 또는 고부지간이나 모녀지간, 모두 가정이 화목하고 굽주리지 않게 하는 부드러운 행과 부드러운 말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돈도 저절로 따라 들어오게 만들 수 있고, 가난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들이 부자인데 어찌 가난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면 가정도 가난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전력이나 내 전력이 똑같고, 예를 들어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전구는 저렇게 다르지만 전력은 다 똑같은 거를 알게 해야 합니다. 아들 따로 기도 드려주고, 딸 따로 기도 드리고, 부모 따로 드리고 남편 따로 드리고 이런다면, 살림살이하기도 바쁘고 죽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지 않고, 괴로워보지 않고, 경험을 안 해본다면 남의 말 그저 하듯, 남의 행하듯 무심하게 넘어가지만 전 안 그렇습니다. 저 어떤 때는 이런 흥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병을 잘 고친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내가 병 고쳐준다고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물이기 때문에 공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

## 佛... 영원한 생명의 근원 敎... 조화를 이루는 그 자체

아제 아제 바라아제  
원망하고 신경질내며  
항상 남의 탓만 하면  
천년 만년 썩 못 벗어나

습니까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고무를 같은 인생에 돈을 같은 모습 이 다 흩어지고 무엇이 남는 게 있겠습니까마는 정신력, 마음의 차원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로써 너무 치달아서 노예가 된다면 여러분이 죽어도 그 의식 영혼들이, 즉 말하자면 이 몸이 있는 중생들을 제도 못하고 인과로서 악업 선업이 있어서 그 업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면서 눈에 보이지 한 발짝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 다음에 이차적으로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졸졸이 붙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몸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그 영혼이 물건을 건넬 때 물에 빠져 죽을까봐 배우기를 기다리고 영혼들이 죽 기다리고 있으니, 5백 생을 기다려도 배는 오지 않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기독교든 가톨릭 교든 불교든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항아리 속에서 우리는 지금 구르고 있고 또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빠져 죽을까봐 건너지 못하니까 불교에 서는 '저 언덕을 넘고 저 물을 건너가 세' 하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아제' 하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한 것도 역시 그런 뜻입니다. 좋고 나쁘고, 수복하게 나오는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고, 괜히 신경질 나는 마음, 남의 탓을 하는 마음, 남을 원망하는 마음,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다 보면은 5백 생이 가도 천년 만년이 가도 끝내